



작은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졸업식이 끝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깨달은 행복 고루 나눌게요

실상사 작은학교 첫 졸업식 현장

연주, 산하, 예술, 은희, 수용, 수문, 성우, 승관, 현재, 준석, 한빛, 재영이의 졸업식이 2월 15일 지리산 자락 실상사에서 있었다.

이들 12명이 졸업생 전부다. 그래서 학교 명칭도 '실상사 작은학교(www.jakeun.org)'다. 흔히 말하는 대안학교로 불리게 하나뿐인 중학교정이다. 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연극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학교. 2001년 문을 열었고 이날이 첫 졸업식이다.

졸업식은 실상사 대중방에서 '축하영상 메시지'로 시작했다. 실상사 대중 스님은 물론 공양간, 찻집, 종무소 스구들 그리고 마을 아주머니, 아저씨, 장난꾸러기 동네 아이들까지 이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교사대표 이경재 선생은 감격스런 듯 잠시 목이 메더니 "선생과 제자라기보다 함께 정진했던 도반이었다"며 "지리산에서 깨달은 행복을 밖에 나가 모두에게 고루 나눠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상사 주지 종교 스님도 "항 짠 종이에 향내가 묻어났다. 실상사에서 향기를 이웃에 전해달라"며 축하인사를 했다.

작은학교의 졸업은 학생만의 졸업이 아니다. 부모, 가족이 함께하는 졸업이다. 그래서 졸업장은 가족이 모두 받았고 한미디씩 졸업사를 했다.

"작은 학교에서 사는 법을 배워 이제 살 만 하니 까 떠나라고 하네요."

"한바탕 신나게 놀다 갑니다."
"지리산아! 고맙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무대 앞에서 졸업장과 선물을 한아름 받아들 때만 해도 들떠있었다. 그런데 끝내 보여주는 것은 눈물과 울먹임으로 끝을 맺지 못하는 졸업사였다.

작은학교 졸업장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손수 제작했다.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라난다'는 학훈과 함께 보리수잎을 붙여 만든 예술작품이다. 앨범도 개별적으로 제작했다. 도반(선생님, 학생, 학부모 등)들과의 3년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앨범이다. 앨범에 담지 못한 사진은 학부모가 CD로 제작해 선물했다.

2001년 개교 이후 12명 첫 졸업 스님을 비롯 동네 아이까지 축하 교사가 보리수잎 붙여 앨범 제작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삶 실천

이전부터.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여진 모습일 뿐이다. 지리산과 실상사, 마을이 모두 학교이면서 공부부터 다. 실상사 귀농가족이 100여명, 여기에 마을주민, 실상사 스님과 대중 모두가 가르침을 주는 교사다. 이만한 교정과 선생님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또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인지 실상사 작은학교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금년에도 12명 정원에 전국에서 5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으니 꽤나 인기 있는 학교다.

축사도 끝나고 선물도 받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장이 열렸다. 작은학교의 가수 예술이와 기타리스트 수련이의 졸업공연. 예술이의 음성과 몸짓으로 무대가 활짝 뒀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 헤어진 모습이 대로" (063)636-3368

글·사진=이준엽 기자

순천시, 부도탑 정비한 스님 고발 "문화재법 위반"·"당국 방치" 대립

사찰 경내에 흩어져 있던 조각난 부도 5~6점을 정비한 사찰에 대해 관할 시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순천시 정혜사(주지 종회)는 2002년 5월 명관 스님의 부도탑을 세운 이후 그해 10월 부도 조각 3점, 지난해 12월 나머지 부도를 옮겨 부도전을 조성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정혜사가 비지정 매장문화재인 사리탑(부도)을 무단으로 채취해 문화재 보호법 제44조(발굴의 제한)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위반했다"며 굴삭기를 운전한 정혜사 신도 김상섭 씨를 1월 6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종회 스님은 "전 주지 스님들께서 이들 부도를 옮겨 줄 것을 여러 번 간청했지만, 예산부족이 한 이유로 지금까지 이를 미뤘었다"며 "당국이 고발할 정도로 중요한 문화재라면 입간판이라도 세워 주의를 주거나 최소한 공문서 한 장이나 구두로라도 알려줘야 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월 4일 현장조사한 조계종 문화부 박상준 계장은 "이 부도는 이미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로 볼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유진 기자

향림유치원 '아이들 세상 전시회' 손수 만든 작품 500여점 한자리



광주 향림사 부설 향림유치원(원장 김원숙)은 7일 원내 교육관에서 신학기에 앞서 '아이들 세상 전시회' (사진)를 개최했다.

향림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50여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손수 만든 작품 500여점을 모아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관하고 원생들을 격려했다.

향림유치원은 불교교육을 바탕으로 인성, 표현활동, 예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4학년도 신입원생을 2월말까지 모집하고 있다. (062)375-7604

이준엽 기자

회암사지 2008년까지 정비사업 추진 580억 여원 예산, 전시관 건립 등 진행

조선시대 최대 사찰로 추정되는 양주 회암사(사지 제128호)가 2008년까지 종합 정비된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발굴조사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 오던 회암사지 일대에 58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유물전시관 건립, 유적 정비, 조경 사업을 진행해 종합 정비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지난해 6차 발굴조사까지 256칸의 건물이 발견된 회암사지에서는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 부도(보물 제388호), 쌍사자 석등(보물 제389호)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다.

오유진 기자

우리 것 우리 신도

"기도정진하면 행복해 집니다"

이천 연화사 김상인 신도회장·조인성 총무



연등을 만들고 있는 김상인 신도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인성 총무(왼쪽에서 두 번째)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팔이 부러졌어요. 아픈 것보다 부처님 생각이 먼저 났어요. 대중 봉대만 갖고 연화사 법당으로 달려와 부처님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절했지요."

경기 이천 연화사 김상인(48·법명 자운) 신도 회장은 지난해 말 건설현장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다. 회복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9년전 사업실패 때 만난 불교로 새 삶 절망하며 불법 이해·마음 평온 찾아 기도할 하면서 한 달 만에 봉대를 풀고, 지금은 일을 시작할 만큼 회복됐다.

"의사들이 들으면 어이없어 하겠지만, 기도하고 절하는 것이 불리하지요"고 말하는 김 회장은 9년 전 사업실패로 좌절, 자살하려 집을 나왔다가 연화사로 향한 것이 인연이 돼 지금은 신도회장까지 맡고 있다.

살의 의욕을 모두 소진했을 당시, 주지 스님의 '함께 하는 기도'는 큰 힘이 됐다. '법당에서 하는 기도는 모두 함께 하세요. 108배, 3000배, 철야기도까지 모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연화사 신도들은 한번 마음 낸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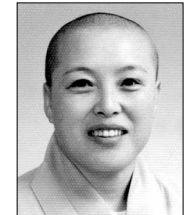
를 쉽게 포기 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연화사 총무를 맡게 된 조인성(35) 보살도 스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명나게 기도한다.

"예전엔 '내 가족 잘 되게 해 주세요'하고 빌기만 하는 게 불교인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좀더 이해하게 됐 습니다. 절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를 마칠 때면 업하기만 하던

부처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조 총무도 남편(인광석·39)이 사고로 다쳤을 때 연화사와 인연을 맺었다. 이처럼 연화사 신도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기에 연화사를 찾았지만, 지금은 다들 얼굴이 '웃는 인상'으로 바뀌었다. 김 회장과 조 총무는 한 목소리로 기도정진 할 것을 당부한다. "기도정진하면 항상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평온해져, 일도 잘되고 가정도 행복합니다."

이천=오유진 기자



추천의 말

행덕 스님 연화사 주지

신도들에 힘 북돋워주는 불자

입니다. 힘들수록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마음을 모으는 신도들이입니다.

언제나 사람 일에 솔선수범하는 두 분은 제가 함께 해 기도가 잘 된다고 하시지만, 오히려 이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환희심이 납니다.

보은의 영험이 가득한 치악산 국형사 삼사 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치악산 국형사는 신라경순왕 1150년전 무왕산에서 창건한 이래 명승 고찰로써 명성을 이어 왔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대왕이 전국 오악 명산에 산신단을 모셔 국래민안과 우순풍조를 기원드린바 있습니다. 이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치악산(동악산) 국형사는 동악단을 모시고 현재까지 매년 봄가을에 지역 시장, 군수, 지역유지들과 원주지역 모든 시민 불자님들을 모시고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치악산 국형사는 **평 보은의 유래에 걸맞게 평 방생 장소**로 최적지입니다. 전국의 불자님께서는 감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치악산 국형사에 많은 성지참배를 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형사 주지 합장

▶ 대형주차장 완비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98번지 국형사 **033-747-1815**
▶ 입장료 무료 ※ 방생전 사전 연락주시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계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흥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계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 (063) 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 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